

본격적인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

- 전국 지자체와 지역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포럼) 개최
- 4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유 및 추진상황 점검 방안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2일 오후 4시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기후변화주간(4.22~4.28) 중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향후 지역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담당자,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4월에 수립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4개 광역지자체의 기본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 향후 매년 추진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추진상황점검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그간 지역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있게 탄소중립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자체의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한 상담(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별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자체간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책임자	과 장	김진식 (044-201-6640)
		담당자	사무관	장화영 (044-201-665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포럼 개요

- (목 적)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사례 공유 및 향후 기본 계획 이행 점검, 센터 운영 개선 등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실현 방안 논의
 - ※ 제54회 지구의 날(4.22) 맞이, 기후변화주간행사(4.22~4.28)와 연계 개최
- (일시/장소) '24. 4. 22.(월), 16:00 ~ 18:00/ 코엑스 318호
- (주최/주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참 석 자) 약 150명
 - 환경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광역·기초 지자체 탄소중립 담당자 및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

□ 주요내용

- 4개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발표
- 지자체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계획(안) 및 센터 지침개정(안)* 발표
 - *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 및 기초센터-ACT센터간 협력방안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발 표 내 용	비 고
16:00-16:05	5'	• 인사말씀	기후변화정책관
16:05-17:05	60'	• 탄소중립기본계획 발표(서울, 부산, 광주, 대구)	탄소중립지원센터장
17:05-17:25	20'	• 시도 계획 추진상황 점검 계획(안) 및 센터 지침 개정(안) 발표	ACT센터
17:25-18:00	35'	• 패널 토론 및 질의 응답	패널/참석자 전원